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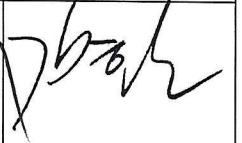


등록번호	상산고등학교-459
등록일자	2022. 1.12.
결재일자	2022. 1.12.
공개여부	공개

위원장	학교장
	

##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b>회의명</b>	제125차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b>회의일시 및 장소</b>	2022.01.03.(월) 10:00 ~ 11:40 상산고등학교 화상회의실
<b>참석자 명단</b>	출석위원: 손○○, 강○○, 김○○, 송○○, 조○○, 김○○, 임○○, 김○○, 곽○○ 이○○, 한○○(15명 중 11명 참석) 출석교직원: 교감 이○○, 국○○, 행정실장 김○○
<b>회의 진행 순서</b>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1. 성원 보고 및 개회 2. 전차 회의록 낭독 </div> <div> 3. 안건 자문 및 보고 4. 폐회 </div> </div>	
<b>상정 안건</b>  1. 교육과정 변경 및 편성(안)	
<b>보고사항</b>  1. 위탁 급식 업체 제안서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구성 계획 및 평가 일정	
<b>회의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는 성원이 되었음을 위원장에게 보고함.</li> <li>○ 위원장은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li> <li>○ 위원장이 간사에게 전차 회의록 낭독을 요청하여 간사가 전차 회의록을 낭독함.</li> <li>○ 위원장이 참석 위원에게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의견을 묻자 참석 위원 전원 의견 없다고 대답하여 원안대로 승인함.</li> </ul> <b>1. 교육과정 편성 및 변경(안) (자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한○○): - 2021, 2022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함.</li> </ul>	

- 이번 교육과정 변경 목적은 대학 입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목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임.

- 지난 교육과정 변경은 입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 및 과학 탐구 교과 위주의 변경이었으며, 기초 교과인 국영수 교과에서는 수학 3과목(기하, 확률과 통계, 미적분)을 선택할 경우 국어 교과인 언어와 매체 과목을 수강할 수 없게 되어 있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위원회(2021.12.29.) 회의를 거쳐 2학년 2학기에 필수교과였던 영어Ⅱ 교과를 기초교과선택과목군에 포함하여 기존 선택과목 3개(언어와 매체, 기하, 확률과 통계, 미적분, 심화 영어작문Ⅰ 중 택3)에서 선택과목 4개(언어와 매체, 기하, 확률과 통계, 미적분, 심화 영어작문Ⅰ, 영어Ⅱ 중 택4)로 변경하는 내용임을 자세히 설명함.

○ 위원장(손○○): 제1호 안건에 대해 의견 개진을 요청함.

○ 위원(송○○): 이전 교육과정 편성에 불만이 없었으나, 여러 의견이 있어 다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학교마다 차이가 있었음.(조사 자료를 참석 위원 모두 공유함)

수능에서 국어와 영어의 등급 문제로 걱정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있는데 우리 학교 이번 교육과정 변경(안)은 국어와 영어 중에서 택일하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있을 수 있어 학부모 입장에서 고민이 많음.

○ 위원(한○○): 언어와 매체/영어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 2과목 선택으로 충분함. 다만 수학 3과목 이수를 권장하는 학교 및 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함.

다른 방안으로 3학년 1학기에 확률과 통계를 개설하는 안이 있으나, 3학년 때 막상 수능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학 과목을 이수하게 되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떨어지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상 3학년에 편성하면 고급수학Ⅰ과 확률과 통계 중 1개를 선택해야 하는데 수시전형으로 가려면 고급수학Ⅰ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함.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교육과정이 이번 변경(안)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정확한 입시요강이 2022년 4월경에 발표되는데 '핵심 권장과목'과 '권장과목'의 영향이 얼마나 클지 상황을 봐서 영향의 과중에 따라 3학년 교육과정의 변경을 고민하고 있음을 설명함.

○ 위원(송○○): '핵심 권장과목'과 '권장과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 '핵심 권장과목'이라는 애기와 카이스트 등 수시전형을 가려면 수학 3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는 주변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 수학 3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함. 중학교 학생·학부모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우리 학교의 경우 이과는 확률과 통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 위원(한○○): 예전에는 이과를 가려고 하는 경우 대부분 기하와 미적분을 하였음.

○ 위원(송○○): 지난 교육과정 변경에 이어 사실 이번 변경(안)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임.

○ 위원(김○○): 제 생각에는 수학 3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변경(안)은 어느 과목을 배제하는 형태가 아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판단한 사항임.

○ 위원(조○○): 이번 교육과정 변경(안)도 학교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판단했다고 생각됨.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국어나 영어 과목의 수강인원이 나눠짐으로 인해 내신에 대한 우려가 있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이 왜 이제야 반영되었는지, 앞으로도 계속 입시가 바뀌는데 우리 학교가 입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늦는 것은 아닌지, 일부 학부모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매번 교육과정을 변경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과정을 변경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에 아쉬움을 표함.

○ 교감(국○○): 이번 교육과정 개편은 사실 작은 변화로서 언어와 매체, 영어Ⅱ를 선택군에 포함시켜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그리고 학부모가 원하면 다 반영이 되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변경한 것이며, 이번 변경(안)도 지난 번-에 이어 2015 교육과정의 핵심 철학인 선택의 다양성이라는 기초를 따른 것임을 설명함.

○ 위원(조○○): 이번 교육과정 변경(안)이 지난번 교육과정 변경 내용에 반영되어 개편되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함.

○ 위원(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변경할 때는 많은 고민을 했을텐데 어떠한 이유로 변경을 하든 지난번 교육과정 변경에 대해 수요 조사 등 정식 절차를 밟아 이미 결정된 사항인 만큼 이번 변경(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지난번 교육과정 개편내용에 이번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학교의 잘못으로 보여질 수 있어 크게 문제가 없다면 변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함.

○ 교감(국○○): 지난번 교육과정 변경에 이번 변경 내용까지 포함하여 개편하였더라면 좋았을텐데 학교에서 포괄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함. 무엇보다도 학교의 교육과정은 안정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추후 교육과정 변경에 있어서는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음.

○ 위원장(손○○): 이번 교육과정 변경(안)이 현재 1학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 1학년 학부모의 의견을 들었고, 2학년 학부모 위원에게도 의견 개진을 요청함.

○ 위원(강○○): 개인적으로 이번 변경(안)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 위원장(손○○): 제 의견을 말씀드리다면 이번 변경(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며, 이유는 2가지임.

첫 번째, 특정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과 일부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과정 편성은 학교의 권한인데 이러한 학부모의 요구가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듦.

두 번째, 교육과정 개편은 중간에 잘 하지 않으며, '지금 선택과목 변경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개정의 시기, 필요성, 내용, 절차 및 선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

따라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교육과정 변경(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존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함.

○ 위원(한○○): 대학 입시 요강에 따라 효율적으로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교육과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대입 준비에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임을 보충 설명함.

○ 위원장(손○○): 현실에 맞춰 교육과정 변경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지난 교육과정 변경에 이번 내용이 반영되어 신중하게 결정되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이번 변경(안)에 대해서는 찬



성과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모든 학생에게 유리하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이번 변경(안)은 일부 학생을 위한 변경이라고 판단됨.

◦ **위원(강○○):** 주변에서 보면 매년 입시가 달라져 아이와 학부모가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음. 학교 의견처럼 대학에서 입시를 늦게 발표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에서 적시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위원(조○○):** 지난번 교육과정처럼 커다란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 이런 형태로의 건의 사항이 받아들여져 변경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저 역시 위원장과 같은 의견으로 기존 교육과정을 유지하였으면 함.

◦ **위원(김○○):** 교육과정은 작은 변화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과정이야말로 학교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학교가 일부 학부모의 요구를 들어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하는 것이니 학교의 결정을 믿고 따라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교육과정 변경 시에 이번 변경(안)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사과함.

◦ **위원(김○○):** 학교마다 교육과정은 다 다르고 어떤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 훌륭하다고 믿으며, 계속 서로 다른 의견을 듣다 보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위원장의 중재를 요청함.

◦ **위원장(손○○):** 이번 안건은 자문 사항으로 찬성과 반대를 정할 성격의 안건도 아니고, 다른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로 전달한 부분임. 교권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학교의 결정에 이견을 말하고 싶지 않음. 다만 제가 2가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과 학교에서 선제적 제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학생에게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음을 밝힘.

◦ **위원(김○○):** 그 부분은 사전에 다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음.

◦ **위원장(손○○):**

-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학교 측에서 교권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우리 위원들과 학부모들이 지지하고 성원하며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과 학생들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잘 결정하고 판단해 주시면 동의할 것 같다고 함.

- 참석 위원에게 이견이 있는지 확인함.(참석 위원 전원 없다고 대답함)

- 제1호 안건 교육과정 변경(안)에 대한 자문을 마치겠음.

## 2. 위탁 급식 업체 제안서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구성 계획 및 평가 일정 (보고)

◦ **위원(김○○):**

- 위탁 급식 업체 제안서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구성 및 일정에 대해 설명함.

- 구성인원은 9명으로 내부위원 4명(학생 1명, 교직원 3명, 외부위원 5명(1학년 학부모 2명, 2학년 학부모 2명, 급식 또는 계약전문가 1명))으로 추천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보안 유지를 위해 제안서 평가 2일 전 구성할 예정임.

- 구성 방법은 1순위로 선정된 위원이 불참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 평가위원을 선정함.

- 급식소위원회 위원장(강○○)에게 제안서 평가에 참관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한 분 더 참관을 요청 드림.

◦ 위원장(손○○): 다른 분들의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면 제가 참관하겠다고 함.

◦ 위원(김○○): 제안서 평가에 참관인으로 급식소위원회 위원장(강○○)과 위원장(손○○)이 참석하는 것으로 함.

◦ 위원장(손○○): 한 가지 의견은 외부위원 중 '급식 또는 계약전문가'는 오히려 여러 업체와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학부모를 1명 더 추가하여 학부모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어떤지 질문함.

◦ 위원(김○○): 학교에서는 '급식 또는 계약전문가'를 전라북도교육청에 의뢰할 계획이었으나 다시 고려해보겠음.

◦ 위원장(손○○): 그럼 제2호 안건 '위탁 급식 업체 제안서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구성 계획 및 평가 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른 질문사항이 있는지 확인함.

◦ 위원(조○○): 2022학년도 수시전형 결과는 어떤지?

◦ 위원(김○○): 수시 정원 감소 등으로 작년보다 합격 인원은 소폭 줄었음. 자세한 사항은 정시전형 결과까지 나오면 설명하겠음.

◦ 위원(송○○): 이번 기말고사에서 재시험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신뿐만 아니라 차후 수능 시험에서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를 대비한다면 시험출제에 있어서 특히 국어의 경우 신중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함.

◦ 교감(국○○): 관련 교과 선생님들께도 앞으로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전달하겠으며, 학교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음.

◦ 위원장(손○○): 다른 질문사항이 있는지 확인함.(참석 위원 전원 없다고 함)

제125차 학교운영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기록자: 서기 강○○

교원위원 한○○

학부모위원 송○○

강○○

한○○

송○○